



## 성서학과 교회의 만남:王大일의 삶과 신학

안근조(호서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王大일은 만남의 신학자이다. 그는 평생 성경과 현실의 만남을 힘써왔다. 그의 노력은 신학교 현장에서 교회의 설교강단을 위한 구약해석학으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2019년 감리교신학대학교 정년퇴직 직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하늘빛교회의 청빙으로 목회자가 되었다. 교수사역 내내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현장의 제자들을 돌보다가 결국 교회로 간 신학자가 되었다. 그의 ‘만남’ 유전자는 성서학 연구에 배태되어 있었다. 고전적 역사비평방법론으로 훈련받았음에도 그의 박사논문의 양식비평 연구(Form-Critical Study)<sup>1</sup>로 촉발된 히브리 문학양식에 대한 연구는 신비평주의(New Criticism)의 구조주

1 Tai Il Wang, *Leviticus 11-15: A Form-Critical Study* (Ph. D. dissertation, Claremont Graduate School, 1991).

의 분석과 수사학적 해석방법론으로까지 나아간다. 통시적 연구의 역사비평과 공시적 연구의 문학비평이 그의 성서주석학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다.<sup>2</sup> 왕대일 성서해석학 평생의 역작인 「기독교 경학(經學)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해석: 경학으로서의 성서해석」<sup>3</sup>은 비평이전의 성서해석과 비평이후의 성서해석의 만남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의 구약신학의 내용 또한 구속사 중심의 구원신학이 보편적 역사의 창조신학에 수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4</sup> 자칫 신앙공동체 내의 편향된 구속교리로 흐르기 쉬운 신학담론을 전반적인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균형 잡힌 성서신학과 신앙영성의 장으로 인도하고 있다.<sup>5</sup> 성경과 현실의 만남을 위한 그의 삶의 여정이 학문과 영성의 만남으로 승화되어 성서학과 교회와의 만남을 실현시키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버리는 한국의 구약학 연구의 풍토에서 만남의 신학자인 왕대일의 삶과 신학은 교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성서학의 대안적 비전과 구체적 방법론을 소개해주고 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생활현장이 예배와 신학의 자리가 되어버린 21세기 현재 우리의 성서학의 현주소를 앞서 간 한 성서학자의 발자취를 통해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교회를 사랑한 성서학자’ 왕대일의 삶과 신학을 조명해 보려 한다. 우선, 간략하게 지금까지의 그의 삶의 족적을 되새겨 봄으로써 무엇이 그의 만남과 소통의 DNA를 생성시켰는가를 살필 것이다. 이후 왕대일 신학의 성서학과 교회와의 소통의 특징을 다루게 될 텐데 다음의 총 세부분으로 나누어 논의될 것이다: 1. 교회와 연결된 성서학; 2. 시

2 왕대일, 「구약주석 새로보기」(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5), 175-212.

3 왕대일, 「기독교 경학(經學)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해석: 경학으로서의 성서해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4 왕대일, 「구약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왕대일, 「구약신학」(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2, 2003, 2010).

5 왕대일, 「삶에서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십시오」(서울: KMC, 2008); 왕대일, 「녹색의 눈으로 읽는 성서」(공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구약성서와 성(性)」(서울: 감신대성서연구소, 2000).

대현실에 응답하는 신학; 3. 한국적 읽기로서의 경학. 끝으로, 한 성서학자의 족적을 통해서 21세기 새로운 도전 가운데 서있는 후학들에게 던져주는 신학적 공헌을 조명하며 교회를 위한 성서학의 비전과 방법론을 제시하려 한다.

## 2. 삶의 정황

왕대일은 미션스쿨인 대광중고등학교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교목실 주관 여름캠프에서 목회자로 부르시는 강한 소명을 받고 감리교신학대학교로 진학한다. 학사와 석사과정을 순차적으로 마친 직후 1979년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양주지방 성산교회 담임전도사로 목회의 첫발을 떼게 된다. 1981년에는 같은 지방 수동교회에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4년 동안 충실히 목회현장을 경험한다. 그러나 남다른 성서학적 열정과 재능은 그의 발걸음을 도미 유학의 길로 이끈다. 1984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교(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롤프 크니림(Rolf P. Knierim)의 지도를 받아 M.A.와 Ph.D. 과정을 밟는다. 롤프 크니림 교수는 1962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폰 라드(G. von Rad)의 사사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1966년에 클레어몬트 대학의 교수직을 수락하였다. 20세기말 양식비평 연구의 대가로서, 터커(Gene M. Tucker) 교수와 더불어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FOTL) 시리즈의 주편집자로 활약한 크니림 교수의 지도는 왕대일에게 정통적 역사비평 연구의 엄격한 훈련의 장을 열어주었다. 마침내 1991년 1월, *Leviticus 11-15: A Form-Critical Study* 제하의 논문으로 Ph.D.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1990년 가을, 클레어몬트에서 박사과정의 마지막 관문인 구술시험이 통과되자마자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렇게 목회자로 시작한 그의 여정이 신학자로, 교육자

로 모교에 서는 새로운 단계를 맞게 된다.

그러나 그는 신학의 과정에서 목회의 끈을 놓은 적이 없었다. 유학을 준비하던 1984년에도 서울연회 동대문지방 청량리교회에서 교육부 목사로서 실천적 성서교육을 젊은 세대들에게 베풀었고 미유학기간 내내 포모나 교회(Pomona Valley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교육목사로 교회현장에서 봉사했다. 이윽고, 그의 목회적 관심과 교회에 대한 열정은 신학자요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였던 2003년 1월 “새바람커뮤니티교회”라는 초교파 교회를 개척하기에 이른다. 상아탑 안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한 신학교 교수가 실천적 목회현장에 계속해서 잇닿으려 했던 고투의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왕대일은 목회자로, 신학자로 동시에 살고자 하였다. 결국, 그는 뜻하지도 않게 교수 정년퇴직 후 서울 강서동지방 하늘빛교회의 청빙을 받아 담임목회자로 오늘에 이르게 된다.

신학자로서의 그의 족적은 성서학계에 과문을 일으키는 그의 저서들과 신기원을 이루는 논문들 그리고 수많은 강연과 방송을 통해 알려진 바이다. 좀 더 체계적인 신학적 특징들과 공헌들을 살피기 전에 그가 한국구약학회 활동에 끼친 공적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한국구약학회 총무로, 그리고 회장으로 다른 이들 보다 2배의 수고를 감당했다. 통상 2년으로 끝나는 임원의 임기를 총무 2회 4년(1998~2002), 회장 2회 4년(2006~2010)의 기간 동안 한국구약학계 발전을 위해 힘썼다. 특히, 회장으로 봉직하는 기간 동안, 2008년 7월 아시아성서학회(Society of Asian Biblical Studies) 창립 학술대회 준비 위원장으로 SABS의 정착을 이끌어냈고, 2008년 12월 한국구약학자들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있는 한국구약학회와 한국복음주의 구약학회의 양대 학계를 아우르는 공동학회를 서울 은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일구어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5월에 한국구약학회 회년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지구화 시대의 구약성서”라는 제목으로 세계적 학자들(Robert Coote,

Terence E. Fretheim, Archie Lee)을 초대하여 성황리에 치렀다. 한국성서학의 국제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2016년 7월 세계성서학회국제대회, 서울대회(SBL Internation Meeting Seoul Conference)를 준비위원장으로 개최함으로써 빛을 보게 된다. 이외에도 현재의 한국구약학회 홈페이지를 2009년부터 구축했고, 2009년 12월에는 학자들과 목회자를 초청하여 교제를 나누는 “송년의 밤”을 시작함으로써 이후 매년 한해를 보내며 구약신학자들과 초교파 목회자들이 함께 만나 성서읽기의 교회현장 적용을 토의하는 송년학술대회의 기원을 이루도록 하였다. 그의 신학자로서의 끝없는 봉사는 마침내 2019년 10월에 12개의 회원학회, 3000명의 신학자가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학회 회장으로 선임되기에 이른다.

### 3. 성서학의 소통 I: 교회와 연결된 성서학

왕대일의 삶을 통해 간략히 살펴본 바, 성서학과 교회의 만남을 위한 그의 평생의 여정은 전도서 11장 6절의 말씀을 연상케 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sup>6</sup> 그의 목회를 위한 씨 뿌림과 성서신학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진정 둘 다 잘 되는 삶으로 열매 맺고 있다. 이렇게 “둘 다 힘쓰는” 왕대일의 만남의 신학은 학자로서의 입문 초기로부터 발견된다. 그의 첫 번째 저서인 「신앙공동체를 위한 구약성서 이해」<sup>7</sup>는 말 그대로 교회를 위한 구약성서학 소개서였다. 1990년대 기존 학자들의 “구약개론서”는

6 한글개역개정

7 왕대일, 「신앙공동체를 위한 구약성서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3).

역사비평적 관점의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오히려 구약성경에 다가가려 하는 신학도들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왕대일은 성서학을 ‘쉽게’ 설명하고 성경을 ‘밝게’ 풀이하려는<sup>8</sup> 새로운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성서학 연구 시절 정경비평(Canonical Criticism)의 대가인 샌더스(James. A. Sanders)의 가르침을 잇는 정경공동체에 대한 연구의 발로이며 궁극적으로 교회의 신앙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실천적 신학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었다. 3년 후 두 번째로 출판된 그의 저서인 「새로운 구약주석: 이론과 실제」<sup>9</sup>는 6년에 걸친 신학교 강의의 결과물로서 신학도들과 설교자들로 하여금 성서주석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안내서이다. 특별히 성서본문(text)에 대하여 더 이상 과거의 역사적 기록물이기 보다는, 긴밀하게 구성된 문학적 결합체로(texture),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독립된 유기체로서의 본문구성체(textuality) 라는 이해를 새롭게 밝혀 주었다. 이와 같은 성서해석의 근본적 관점의 변화는 성서해석학 작업을 기존의 본문비평과 자료비평의 가설제시와 전승사연구, 편집비평 등의 역사비평적 논쟁의 장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정경적(canonical) 문학기성체와 주석자가 만나는 교류와 발견의 장으로 새롭게 변화시켰다. 새로운 본문접근의 실제적 결과물로 1998년에 신명기에 대한 다음의 주석서가 편찬되었다: 「다시 듣는 토라 : 설교를 위한 신명기 연구」(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8). 이 책에서도 왕대일의 번뜩이는 통찰이 발현된 것은 신명기를 단순히 원신명기(신 12-26장)에 기초한 신명기 법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듣는 토라” 곧 새로운 가르침으로 해석학적 관점을 전환시

8 왕대일 엮음, 「좀 쉽게 말해 주시오: 본문비평과 성서번역 - 민영진 박사 제 1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왕대일 엮음,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 주석과 성서번역 - 민영진 박사 제 2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9 왕대일, 「새로운 구약주석: 이론과 실제」(서울: 성서연구소, 1996).

키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듣는” 이라는 것은 신명기서의 역사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요, “토라”라는 것은 율법뿐만이 아닌 가르침의 복음서로 읽는다는 신학적 의도성이다. 거기에 교회를 위한, 곧 “설교를 위한” 신명기 연구라는 실천적 성서학의 방향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王大일의 설교자를 위한 성서학의 관심은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설교학자인 이성민과 더불어 성서학과 설교학의 만남을 위한 다음의 공동저작으로 구현되었다: 「구약설교 패러다임: 구약학자의 설교이해, 설교학자의 구약해석」(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2).

성서신학자로서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은 구약성서를 통해서 보는 목회학으로,<sup>10</sup> 성경과 삶의 만남으로,<sup>11</sup> 창조신앙의 영성으로<sup>12</sup> 계속되는 그의 학문적 여정에서 반복되고 깊어진다. 그의 연구논문은 성서를 경전으로 읽도록 초청하고 있다.<sup>13</sup> 특히, 2009년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53권 1월호부터 12월호까지 편찬된 “구약의 샘에서 길는 영성” 시리즈는 구약성서신학의 학문적 결과가 오늘날 교회성도들의 영성에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王大일의 신학적 고민과 목회적 성찰을 드러내준다. 예를 들어,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는<sup>14</sup> 말씀으로 창조된 창세기의 신학이 여전히 오늘날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임을 깨우쳐준다. 삶 자체에서 경험되는 말씀 영성으로 성도들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주일이 우리를 지킵

10王大일, 「목회자의 실패, 목회자의 성공: 구약성서에서 배우는 오늘의 목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1王大일, 「삶에서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십시오」(서울: KMC, 2008).

12王大일, 「창조신앙의 복음, 창조신앙의 영성: 창세기 1-11장의 물음·부름·푸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13王大일, “시편의 신학: 시내 산과 시온 산”, 「구약논단」 32 (2009), 10-29. 양식비평의 분석적 시각이 더 이상 아닌 시편을 한 권의 책으로, 최종형태 자체를 토라로 보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14王大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사상」 53.1 (2009), 130-140.

니다”<sup>15</sup> 안식의 개념에 대한 성서적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의 완성과 평강의 질서가 우리의 삶에 가장 본질적인 내용임을 교훈한다. 무엇보다도, “영성은 하나님 안에 등지를 트는 일입니다”<sup>16</sup>에서王大일의 성서학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근본적 기독교 영성을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요, 모든 관계성이요, 벌써부터 나를 두르고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역설한다.

王大일의 신학이 성서학과 교회의 만남을 지향하기에 현실과 사회에 동떨어진 신학으로 속단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의 교회에 대한 관심은 동시에 교회를 둘러싼 세상의 문제와도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王大일 신학의 응답의 특징, 즉 성서학이 어떻게 현실의 문제와 도전들에 대담하고 극복하는가를 설명해 준다.

#### 4. 성서학의 소통 II: 시대현실에 응답하는 신학

王大일의 응답의 신학은 2000년이 열리기 전 10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을 현혹시킨 종말론의 문제들에 적극 대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이장림이 이끈 다미선교회의 시한부종말론은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나고 1999년에 지구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에 미혹되어 가족과 직장을 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1994년에 출판된 「목시문학연구: 구약성서 목시문학 다니엘서의 재해석」<sup>17</sup>은 성경이 말해주는 종말론의 의미를 성서신학적 관점에서 시의적절하게 대답하는王大일의 신학적

15王大일,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기독교사상」 53.3 (2009), 114-124.

16王大일, “영성은 하나님 안에 등지를 트는 일입니다”, 「기독교사상」 54-10 (2009), 112-122.

17王大일, 「목시문학연구: 구약성서 목시문학 다니엘서의 재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특징을 보여주기엔 충분하였다. 목사의 기원을 예언전승에 두고 있었던 기존의 폴 헨슨(Paul D. Hanson)과 달리 지혜전승의 영향에 더욱 비중을 두고 종말론은 미래에 대한 예언적 목시이기 보다는 현실을 사는 분별력과 지혜로운 실천임을 강조하였다. 인간역사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간의 역사가 하늘나라를 초래하거나 유도하지 못한다. 하늘나라가 도래하므로 이 땅 위에 인간 역사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sup>18</sup>고 선언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에 대한 믿음 가운데 고난의 현실에서도 성실함을 잃지 않는 작금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sup>19</sup> 더불어, 과루시아의 대망이 현재의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된다. 다니엘서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단계적 묘사는 오늘이라는 “혼돈의 세계에서 질서 찾기”이다. 이같이 왕대일에게 성서 신학의 메시지는 하나같이 현실의 삶을 위한 적절한 응답이요 지혜이다.<sup>20</sup>

그의 응답의 신학은 특히 오경의 각 책에 대한 주석연구에서 율법이 실천적 메시지로 전환되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빛을 발한다. 1996년부터 성실하게 출간되었던 「21세기 설교가이드」 주석 시리즈<sup>21</sup>는 단순한 목회적 관심의 메시지 도출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른 성서적 문제해결과 대안제시의 신학적 대화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 초기에 신지 못했던 출애굽기의 주석이 최근에 출간되었는데<sup>22</sup> 그의 주석과 강해가 현실의 삶에 고민하는 성도

18 왕대일, 「목시문학과 종말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개정판), 356.

19 왕대일, 율글, 362.

20 2016년 쏫불정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역사에 돌진해 들어오는 비전을 품는 다음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왕대일,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을 3:10a [4:10a]):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사 2:4a; 미 4:3a)에 대한 요엘서의 도전, 그 해석학적 진단”, 「구약논단」 62 (2016), 14-43.

21 왕대일, 「21세기 설교가이드: 창세기 I」(서울: 성서연구사, 1996); 「21세기 설교가이드: 민수기」(서울: 성서연구사, 1997); 「21세기 설교가이드: 신명기」(서울: 성서연구사, 1997); 「21세기 설교가이드: 레위기」(서울: 성서연구사, 1998).

22 왕대일, 「엑소도스,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기까지: 왕대일의 출애굽기 강해」(서울: KMC, 2015); 「성막이 된 하늘성전: 성막의 정음(正音) 회막의 복음(福音)」(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

들의 삶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의 성막은 오늘의 임마누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던 말씀은 기독교인들의 복음이 된다. 출애굽 시대의 법과 내러티브가 오늘의 광야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서 도전을 주며, 실질적 진리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구약학자로서의 신학적 응답 제시는 궁극적으로 창조신학적 차원에서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2016년에 출간된 「창조신앙의 복음, 창조신앙의 영성: 창세기 1-11장의 물음·부름·푸름」<sup>23</sup>은 구약신학의 흐름을 기존의 구속사 중심에서 창조신학 중심으로 옮겨놓는 의미 깊은 신학적 전환을 가져다주었다. 21세기에 들어 다양한 문제들의 거센 도전을 더 이상 고립된 교회의 구원교리의 관점으로 대처할 수 없음을 갈파하고 창조신학의 지평으로 기독교의 신앙의 세계를 확장하고 있다. 기독교신앙의 하나님 고백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임과 동시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 교리신앙이 오늘의 복잡다단한 IT 기술의 진화와 제 4차 산업혁명의 변화, AI혁명, 온갖 SNS 소통과 메타버스(Metaverse)의 가공세계에 상응하는 신학적 응답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안으로서,王大일은 창조신앙에서 신학적 적응과 구원의 길을 새롭게 제시한다. 다석 유영모의 말을 빌려 ‘물음·불음·풀음’의 과정을 창조신앙의 토론에 적용시키면서 새롭게 묻고 불리고 풀어서 마침내 말씀을 통해 창조세계 그대로의 색깔에 합치하려고 시도한다.<sup>24</sup> 거기에 부름이 있고 거기에 신학적 푸른 대안이 자리한다는 것이다. 정경에 충실한 성서연구와 상황에 예민한 그의 성서신학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의 성경이 거세게 몰아치는 현실의 파고를 넘어서서 오늘의 신앙적 삶의 본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실증하

23王大일, 「창조신앙의 복음, 창조신앙의 영성: 창세기 1-11장의 물음·부름·푸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24王大일, 윗글, 6.

고 있다.

왕대일의 응답의 신학은 종말론과 창조론의 정통 신학적 주제들에 그치지 않는다. 때마다 첨예화되는 사회적 이슈들, 즉 생태계신학,<sup>25</sup> 페미니즘,<sup>26</sup> 통일문제,<sup>27</sup> 탈식민주의,<sup>28</sup> 새로운 인간론<sup>29</sup> 등의 다양한 분야들을 섭렵한다. 그만큼 왕대일의 신학은 진공이나 교리가 아닌 현실과 사회에 기반 한 “도전과 응전”의 신학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신학적 여정은 변화무상한 사회적 쟁점들에 분산되지 않는다. 도리어 진득이 진리의 한 우물을 파내려간다. 그러한 그의 평생의 과업이 한국적 성서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다음의 장에서 그가 말하는 경학으로서의 성서학에 귀 기울임으로써 그의 신학적 정수를 맛보려 한다.

### 5. 성서학의 소통 III: 한국적 읽기로서의 경학

왕대일의 성서신학의 여정은 1991년 박사학위 취득부터 2019년 교수정년 퇴직까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1. 1991년~2000년 - 신앙공동체를 향한 구약학적 방법론과 새로운 구약성서학 모색기; 2. 2000년~2010년 - 교회를 위한 성서학과 시대상황에 응답하는 성서신학의 발전기; 3. 2011년~2019년 - 한국적 성서학 수립과 실천적 방법론 적응기. 각 단계는 새로운 성서학적 방법론의 실험과 그에 따른 통합적 구약성서신학 논의가 변화와 발전을 이끌

25 왕대일 공저, 「녹색의 눈으로 읽는 성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26 왕대일 엮음, 「구약성서와 성(性)」 (서울: 감신대성서연구소, 2000).

27 왕대일 엮음, 「통일맞이 성서연구(1)」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출판부, 1999).

28 왕대일, “아시아신학의 성서이해와 구약신학적 반성 - R. S. Sugirtharajah의 ‘탈식민지적 성서비평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3 (1996), 65-104.

29 왕대일,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의 인간이해에 대한 해석학적 진단-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호모 렐igi오수스”, 『Canon & Culture』 12-1 (2018), 235-255.

었다. 먼저, 방법론적으로는 양식비평적 연구에서 문예비평적 연구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학위논문 자체가 레위기 11-15장에 대한 양식비평적 분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문학형식에 대한 그의 깊은 연구가 히브리 본문의 문학적 구조의 패턴과 독특성을 발견케 하였고 그로부터 문예비평과 수사학적비평으로 해석학적 방향성을 옮기는 전기를 맞는다. 더군다나, 교회를 위한 신학적 성향은 역사비평적 연구에서 문예비평적 연구로의 방법론적 전이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한 발 더 나아가, 감리교신학대학교의 토착화 신학의 풍토와 한국교회의 성경에 대한 경전적 읽기의 신앙적 뿌리는 문예비평과 정경비평이라는 기존의 해석방법론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 역사비평이든 문예비평이든 여전히 서구의 신학자들에 의한 방법론이요 이질적 문화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절감했기에 끊임없이 한국적 방법론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문제제기가 바로 2011년 감리교신학대학교 교내학술지에 투고된 “경학(經學)과 역사비평” 제하의 논문이었다.<sup>30</sup> 성서비평학의 근원으로서의 역사비평을 반성하고 오늘의 성서읽기를 위한 성서비평이전의 해석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진다. 그리고는 이듬해 다음 해에 「기독교 경학(經學)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해석: 경학으로서의 성서해석」<sup>31</sup>을 출판하게 된다. 서구적 비평해석학에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성서학적 상황에 큰 파문을 일으키는 저작이었다.

왕대일의 “경학으로서의 성서해석”을 살피기 전에 그의 성서학 여정에서 방법론적 고민과 더불어 또 다른 축을 이루는 구약신학의 담론을 살펴보는 것이 그의 신학적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찍이 왕대일은 교수로 활동한 지 12년 만에 구약성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30 왕대일, “경학(經學)과 역사비평”, 「신학과 세계」 72 (2011), 7-32.

31 왕대일, 「기독교 경학(經學)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해석: 경학으로서의 성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있는 「구약신학」<sup>32</sup>을 출간하였다. 본격적인 성서학의 시원이 되는 1787년 가블러(Johann Philipp Gabler)로부터 2000년대까지의 구약성서신학의 방법론과 중심사상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21세기 구약성서신학의 가능성과 주제들을 “언약공동체읽기”라는 새로운 학문적 토론으로 구약사상을 엮어간 저작이다. 왕대일은 20세기까지의 구약성서신학의 경향을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평가하였다. 즉, 주석신학의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통일된 발전을 이루지 못했거나(H. Gese, P. Tribble, W. Zimmerli, G. Fohrer), 아니면 과도한 해석학으로 너무 완벽한 자신의 체계를 구축한 경우이다(W. Brueggemann, J. Levenson, P. Hanson). 왕대일은 차분히 성서적 의미의 진리성과 적용가능성을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이 요청됨을 강조하면서 21세기의 성서신학은 주석학과 해석학을 연결시킨 결과물이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후 그의 구약신학 토의는 세 차례의 증보와 개정의 과정을 거친다.<sup>33</sup> 그러한 과정 가운데 지속되는 신학적 과제는 구약성서가 말하는 야웨와 세상, 야웨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토론하는 것으로서 그 중심에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이 놓여있다: (1) 야웨 하나님과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관련되어 있는가? (2) 야웨 하나님이 누구와 또는 무엇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전자는 관계의 “질적인 양상”을 묻는 질문으로서 “정의와 공평 속에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수렴되며, 후자는 “양적인 범위”에 관계되는 물음으로서 온 창조세계와 연관을 맺는 하나님을 상정한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와 온 세계와의 관련성”을 묻는 지도교수인 크니림의 문제제기와 닮아 있다. 그러나 왕대일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약신학의 패러다임의 전이를 역설한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구속사 신학)에서 공간의 문제(생태계 신학)로 전환

32 왕대일, 「구약신학」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2).

33 왕대일, 「구약신학」 개정판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3); 「구약신학」 개정증보3판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10); 「구약신학 (개정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하는 것이며, 역사의 문제에서 창조의 문제로의 근본적 확장이며, 구원을 받는 문제(교리)에서 구원을 사는 문제(영성)로의 변화이다. 출애굽 해방이라는 역사적 구원사건 한 가운데에서 왕대일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창조하고 있음을 본다.<sup>34</sup>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생활 한 가운데 성막에 임재하고 동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예배가 드러지는 곳 마다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완성됨을 밝힌다.<sup>35</sup>

왕대일은 이러한 구약의 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구약신학 해석방법론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었다. 첫 번째로, 역사비평적 통시적 해석에서 문예비평적 공시적 해석으로의 길을 모색한 「새로운 구약주석: 이론과 실제」<sup>36</sup>가 1996년에 출판되었다. 이어서 교회공동체에 부합하는 공시적 해석을 위한 문예비평적 연구가 치열하게 진행된 「구약주석 새로보기」<sup>37</sup>가 10년 후 저술되었다. 또 동시에 성서해석의 연구결과를 교회강단에 적용하려는 시도로서 앞서 언급한 바 설교학자와의 「구약설교 패러다임: 구약학자의 설교이해, 설교학자의 구약해석」<sup>38</sup>이라는 실천적 해석학 입문서를 공동 저작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두 개의 중요한 논문도 발표되는데 하나는 성서해석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리는 방법론적 틀에 대한 것이요,<sup>39</sup> 또 다른 하나는 아시아적 성서해석을 위한 동양의 종교적 심성과 경전성의 내용을<sup>40</sup> 제 1회 아시아성서학회(SABS)에서 발표한 논문이었다. 마침내, 2012년 왕대일의 한국적 성서

34 왕대일, 「구약신학」 개정판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3), 169.

35 왕대일, 「구약신학」, 172.

36 왕대일, 「새로운 구약주석: 이론과 실제」 (서울: 성서연구소, 1996).

37 왕대일, 「구약주석 새로보기」 (서울: 성서학연구소, 2005).

38 왕대일, 이성민, 「구약설교 패러다임: 구약학자의 설교이해, 설교학자의 구약해석」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2).

39 왕대일, “성서해석학과 그 패러다임의 전환”, 「신학과 세계」 66 (2009), 7-34.

40 왕대일, “아시아적 성경해석과 그 적용 2: 경전의 재발견 - 성경을 연주하라”, 「기독교사상」 52 (2008), 212-227.

학은 “경학으로서의 성서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구약학계에 발표되기에 이른 것이다. 만남의 신학자답게 그의 한국적 성서학은 여전히 세 가지 측면에서의 만남의 산물이다. 첫째, 그가 훈련받아 왔던 영미계통의 과학적이고 역사비평적인 방법론적 틀이 한국 고유의 동양적인 종합적이고 반복적인 경전 읽기와 만난 것이다. 둘째, 비평이전의 랍비들과 교부들의 성경읽기가 비평이후의 학자들의 성서해석과 만난 것이다 셋째, 가장 큰 의미의 만남으로서 성서 본문을 읽는 성경해석자 자신에게 눈을 돌리게 하여 성서본문과 해석자 사이의 만남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총 12장 350쪽으로 구성된 “기독교 경학”의 성서학적 방법론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1장의 “여는 글”에서는 본서의 저작동기가 개진되어 있다. 다음으로 2장에서 5장은 일반적 성서해석학적 논의를 각각의 범주와 관련하여 한국적 경전학(2장), 교부들의 해석(3장), 유대인들의 미드라쉬(4장), 역사비평(5장)과의 관계성에서 설명하고 있다. 셋째 부분은 6장에서 9장으로 한국적 성서해석학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한국인의 구약학(6장), 김정준의 구약해석(7장), 유영모의 성서해석(8장), 초기 한국교회의 경전적 해석사(9장) 등 통찰력 있는 글들을 접하게 된다. 끝으로 10장에서 12장은王大일 교수의 본격적인 “기독교 경학”을 위한 방법론이 소개되고 있다. 넓이의 해석에서 깊이의 해석으로(10장), 말씀을 종교적으로 읽기(11장), 경학으로서의 성서해석(12장) 등이 그 내용을 이룬다.<sup>41</sup> 그의 기독교 경학의 요체는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1. 독자지향적 읽기; 2. 반복 읽기; 3. 말씀 살기; 4. 자기 부인; 5. 사람 만들기.<sup>42</sup> 이 저작의 가장 큰 공헌은 이미 1장 “여는 글, 왜 경학인가?”에 밝혀져 있다. 이제까지의 성서해석학이 성경을 인문(人文)으로

41 안근조, “王大일의 「기독교 경학(經學)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해석-경학으로서의 성서 해석」 서평”, *Canon&Culture* 7.1 (2013), 230.

42 윗글, 235-238.

읽게 했다면 경학적 읽기는 하늘말씀으로 곧 천문(天文)으로 읽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논리적 사유에 그치는 해석학적 결과가 아닌 초월적 실재로부터 계시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성서신학과 해석학의 궁극적 목적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습관 곧 렉티오 디비나(Lectio Divina)의 말씀영성 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영적 읽기와 삶의 실현은 왕대일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목회자적인 신학자의 외침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준다.

## 6. 성서학적 공헌: 불영과불행(不盈科不行)의 학문성과 영성

만남은 비우고 채우는 과정이다. 교회와 신학이 만나고 역사와 문학이 만나고 전통과 이성이 만나고 학문과 영성이 만나는 것은 왕대일의 성서학이요 삶의 요체였다. 그는 한 저술에서 노아의 영성을 가리켜 유수지위물야(流水之為物也) 불영과불행(不盈科不行)이라는 맹자의 글을 인용한 바 있다.<sup>43</sup>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노아가 그 시대의 남은 자로서 오랜 세월 명령 따라 방주를 짓고 동시대의 사람들을 일깨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낮은 곳을 향했을 것이며 걸림들을 만나면 돌아갔을 것이며 웅덩이를 만나면 채워 나갔을 노아의 영성을 상기하고 있다.<sup>44</sup>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신학자의 자리에서 목회자의 상황으로 내려와 연구하게 하고 가르치게 했다. 역사비평이라는 분석방법론적 훈련이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 교회를 위해 이를 비우고 문예비평이라는 문학적 통합

43 왕대일,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사상』 53.9 (2009), 116-126.

44 왕대일, 윗글, 125-126.

방법론으로 흘러들어감으로써 교회현장과 잇닿는 성경해석학을 가능케 하였다. 비평적 성서학이 설교강단을 지키는 설교자들에게 방해물로 부각되는 순간 부드럽게 돌아감으로 비평이전의 경전적 성서읽기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다. 그의 학문의 그릇이 차고 흘러넘치게 되자 비로소 말씀영성의 지평이 교회현장에 촉촉하게 적셔지게 되었다.

“불영과불행”의 학문성의 공헌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기독교회의 신학자가 걸어야 할 학문적 유연성이다. 학자들의 자기 논리 중심의 학문적 고집과 신학교 교수의 교리 위주의 편향된 교조주의적 주장이 아니라 학문적 철저성을 통해 교회를 위한 신학 본연의 근본과 만나는 일을 왕대일의 성서학은 성취하고 있다. 구약성서 본문에 대한 경전적 읽기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묵상과 연결되도록 그의 경전적 성서학은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비평이전의 읽기나 영성적 주석이 아닌 것은 여전히 인간의 상황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성서학적 곱씹음의 결과로서 말씀과 교회가 만나도록 이끌고 있다. 둘째, 현실을 시는 신학자의 치열한 고민과 적용을 드러내는 학문적 예민성이다. 종교와 신앙 공동체의 이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세계가 아파하고 중시하는 문제로까지 관심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왕대일 신학의 특징이다. 에스겔 47장의 비전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급기야 커다란 하수를 이루듯이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사회와 한국 너머 세계 그리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주제로 그의 신학적 테두리는 확장된다. 그만큼 현실의 문제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고민하며 말씀을 통해 해안적 대안을 열어가는 예언자적 신학의 세계를 구축해 온 것이다. 셋째, 차가운 학문세계의 방법론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적용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과 경전성에 맞닿는 신학의 문화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기존의 서구적 역사비평은 몇몇 성서전문가들에게만 이해되고 통용되는 제한된 성서해석방법론이었다. 신학은 특별한 학문

훈련을 받은 자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王大일 신학의 문화적 적응력은 ‘말씀’에 그쳤던 신학논의를 한국인의 동양적 심성과 정서에 호소하는 경학적 읽기의 실천적 성서학으로 탈바꿈 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경전에 대한 반복적 읽기를 통한 “말씀 살기”를 한국교회의 현장에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말씀문화의 말씀영성의 삶을 선도해주고 있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성서학적 공헌 즉, 목회를 위한 성서신학, 예언자로서의 실천신학, 문화화의 신학은 사실 말 그대로王大일의 “불영과불행,” 곧 채움과 돌아감과 넘침의 삶의 산물이다. 그의 이러한 학문성은 그의 인생여정과 닮아 있다. 신학교 초년생으로 채움이 있었을 때 처음 목회자의 길로 나갔고 인생의 미래라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목회적 직진 보다는 학문 연구의 돌아감의 길을 택했고 연구와 교수가 넘치게 되었을 때 새로운 목회자로 나서게 되었다. 건너 뚝 없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걸어온 신학과 목회의 길, 바로王大일의 “불영과불행”의 신학적 영성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 7. 나오는 말

교회에 봉사하는 성서학은 모든 크리스찬 성서학자들에게 최대과제이다. 그러나 신앙과 이성이라는 근본적인 이원론의 한계는 이 과제수행에 나서는 학자들에게 항상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거기에서 대부분의 한국구약학회에 소속된 학자들은 주로 독일과 영미계통의 학문적 배경에서 훈련 받아왔기에 한국적 상황에 적용 가능한 성서학적 방법론과 신학적 토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여간 힘겨운 작업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까지 살펴본王大일의 성서학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타개책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뛰어난 해석 방법론인 역사비평과 문예비평을 소홀히 지나치지도 않으면서 도리어 통시

적이고 공시적인 방법론적 적용의 훈련과 연구과정을 통해서 정경공동체의 정전인 성서의 진리를 경학적 읽기의 과정에서 발견하는 길을 터주고 있기 때문이다. 성서 자체는 하늘과 땅의 사건이요 오랜 기간에 걸친 다양한 삶의 정황이 얽혀 있기에 기계적 해석이론과 자의적 교리, 인위적 방법론을 통해서도 여간 그 속 뜻을 내주지 않는다. 여기에 경학적 반복을 통한 여백 채우기의 묵상과 통찰이 요구된다. 따라서 성서는 성서학자들의 이성적 전유물도 아니고 설교자들의 교리적 선전물도 아니다. 도리어 성서는 학문과 목회를 둘 다 놓지 않으려는 신학자들 또는 목회하는 신학자들의 만남의 터전이요 오늘의 삶을 위한 진리와 계시의 보고이다. 이제 겸허하게 그 만남의 현장에서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경학적 성서학의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때이다.

## 참고문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의 눈으로 읽는 성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안근조, “왕대일의 「기독교 경학(經學)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해석-경학으로서의 성서 해석」 서평”, *Canon&Culture* 7.1 (2013), 229-239.
- 왕대일, 「신앙공동체를 위한 구약성서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3).
- \_\_\_\_\_, 「목시문학연구: 구약성서 목시문학 다니엘서의 재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_\_\_\_\_,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실수-이야기로 쓴 창세기 주석」 (서울: 종로서적, 1995).
- \_\_\_\_\_, 「새로운 구약주석: 이론과 실제」 (서울: 성서연구사, 1996).
- \_\_\_\_\_, 「21세기 설교가이드: 창세기 I」 (서울: 성서연구사, 1996).
- \_\_\_\_\_, “아시아신학의 성서이해와 구약신학적 반성 - R. S. Sugirtharajah의 ‘탈식

- 민지적 성서비평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3 (1996), 65-104.
- \_\_\_\_\_, 「21세기 설교가이드: 민수기」 (서울: 성서연구소, 1997).
- \_\_\_\_\_, 「21세기 설교가이드: 신명기」 (서울: 성서연구소, 1997).
- \_\_\_\_\_, 「21세기 설교가이드: 다니엘」 (서울: 성서연구소, 1998).
- \_\_\_\_\_, 「21세기 설교가이드: 레위기」 (서울: 성서연구소, 1998).
- \_\_\_\_\_, 「다시 듣는 토라: 설교를 위한 신명기 연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8).
- \_\_\_\_\_, 「통일맞이 성서연구(1)」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출판부, 1999).
- \_\_\_\_\_, 「목회자의 실패, 목회자의 성공: 구약성서에서 배우는 오늘의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_\_\_\_\_, 「좀 쉽게 말해 주시오: 본문비평과 성서 번역-민영진 박사 회갑 기념; 제 1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_\_\_\_\_,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 주석과 성서 번역-민영진 박사 회갑 기념; 제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_\_\_\_\_, 「구약성서와 성(性)」 (서울: 감신대성서연구소, 2000).
- \_\_\_\_\_, 「구약성서, 읽기와 해석하기」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1).
- \_\_\_\_\_, 이성민, 「구약설교 패러다임: 구약학자의 설교이해, 설교학자의 구약해석」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2).
- \_\_\_\_\_, 「구약신학」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2[초판]).
- \_\_\_\_\_, 「구약신학」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3[개정판]).
- \_\_\_\_\_, 「구약성서 이해 열마당」 (서울: 새길, 2003).
- \_\_\_\_\_, 「목시문학과 종말론: 다니엘의 묵시록, 새롭게 읽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_\_\_\_\_, 「구약주석 새로보기」 (서울: 성서학연구소, 2005).
- \_\_\_\_\_, 「민수기: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주석 0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_\_\_\_\_, 「삶에서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십시오」 (서울: KMC, 2008).
- \_\_\_\_\_, 「성서해석학과 그 패러다임의 전환」, 『신학과 세계』 66 (2009), 7-34.
- \_\_\_\_\_,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사상』 53.1 (2009), 130-140.

- \_\_\_\_\_,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기독교사상」 53.3 (2009), 114-124.
- \_\_\_\_\_, 왕대일, “시편의 신학: 시내 산과 시온 산”, 「구약논단」 32 (2009), 10-29.
- \_\_\_\_\_,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사상」 53.9 (2009), 116-126.
- \_\_\_\_\_, “영성은 하나님 안에 등지를 트는 일입니다”, 「기독교사상」 54.10 (2009), 112-122.
- \_\_\_\_\_, 「구약신학」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10(개정증보 3판)).
- \_\_\_\_\_, 「신학교육, 그 패러다임의 전환-지식교육에서 영성 함양으로」 (서울: 한국신학교육연구원, 2010).
- \_\_\_\_\_, 「기독교 경학(經學)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해석: 경학으로서의 성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_\_\_\_\_, 「시편사색, 시편 한 권으로 읽기: 토라로 토다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_\_\_\_\_, 「전도자의 질문, 전도서의 해답: 왕대일의 전도서 강해설교」 (서울: KMC, 2014).
- \_\_\_\_\_, 「구약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개정판)).
- \_\_\_\_\_, 「엑소도스,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기까지: 왕대일의 출애굽기 강해」 (서울: KMC, 2015).
- \_\_\_\_\_, 「창조신앙의 복음, 창조신앙의 영성: 창세기 1-11장의 물음·부름·푸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 \_\_\_\_\_,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을 3:10a [4:10a]):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사 2:4a; 미 4:3a)에 대한 요엘서의 도전, 그 해석학적 진단”, 「구약논단」 62 (2016), 14-43.
- \_\_\_\_\_, 「구약성경의 종말론: ‘그 날’을 향한 소망」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17).
- \_\_\_\_\_, 「새로 읽는 구약성경」 (서울: CMI, 2018).
- \_\_\_\_\_,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의 인간이해에 대한 해석학적 진단-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호모 펠리기오수스”, *Canon & Culture* 12.1 (2018), 235-255.
- \_\_\_\_\_, 「성막이 된 하늘성전: 성막의 정음(正音) 회막의 복음(福音), 출애굽기 25-31장의 주석과 강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

검색어

성서학

교회

왕대일

기독교 경학

한국적 읽기

## **A Search of Biblical Studies in Dialogue with Church: Life and Theology of Dr. Tai Il Wang**

Keun-Jo Ahn

Hoseo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discuss a dialogue between biblical studies and church from the perspective of a specific theologian whose scholarship has enhanced the dialogue. Dr. Tai Il Wang is one of the leading scholars in South Korea who has dedicated all of his life in the Old Testament studies. Throughout his faculty career at the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in Seoul for twenty nine years, he has never left pulpit in the church. He regards the Bible as the product of faith community. His biblical interpretation is not simply a scholarly work but a passionate encounter with the texts.

After a short review of Dr. Wang's life in which his consistent efforts in

both scholarly and ministerial works are highlighted, this article will review three contact points of his biblical studies with practical settings of the church. First, he has focused on canonical reading of the Bible, while he accepts the meaningful findings of the historical critical interpretation. His biblical scholarship demonstrates a strict objective procedure that employs both diachronic and synchronic interpretive methods. Yet, all of his exegetical works conclude with ecclesial applications. Second, it is a biblical theology in response to contemporary issues by which churches are enriched. Dr. Wang tries to discover all the details of the human and social problems in the Bible and connect them with today's circumstances. His creation-centered theology makes it easier in adaptation of biblical messages into practical issues of human life. Third, the biblical reading of *Kyung Hak* pioneers a new way of interpretation in Korean Christian churches. Dr. Wang has not been satisfied with the previous analytical methods of German or American scholarship because they are different in nature from Korean approach to the Scriptures, the Canon of the church. That is why he has developed a Korean way of biblical reading by utilizing the traditional *Kyung Hak*.

There are three theological attitudes we have to learn from Dr. Wang's biblical scholarship. First, he has flexibility in doing theology. He would not stay within the dogmatic or scholarly stubbornness. Instead, he always examines his biblical works in the criterion of the canonical community. Second, he has sensitivity to social issues. Through his exegetical works of the Old Testament, he makes prophetic voices against all odds and ends in human society. Third, he has creativity by transforming western styled biblical criticism into Korean style canonical reading of *Kyung Hak*. Dr. Wang has opened a new

way of biblical studies in which both scholarly and pastoral interpretations meet together in the celebration of the Christian Canon.

## KeyWords

Biblical Studies

Church

Tai Il Wang

Christian *Kyung Hak*

Korean Interpretation

- 투고일: 2022년 4월 12일
- 심사일: 2022년 4월 25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5월 19일

[www.kci.go.kr](http://www.kci.go.kr)